

영화 '입을 위한 행진곡' 광주서 첫 시사회

눈시울 붉힌 관객들 "더 많은 사람 봤으면..."

1980년 5월18일의 트라우마를 다룬 영화 '입을 위한 행진곡'의 시사회가 9일 오후 광주 롯데시네마에서 열렸다.

스토리펀딩 후원 감사 시사회는 광주에서 열린 출정식을 시작으로 화순, 전주,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인천, 서울, 춘천 전국 10개 도시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월16일 전국의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는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노래를 제목으로 해 제작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목 교체 요구' 등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스토리펀딩을 통해 1억 2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마침내 3년여의 제작 끝에 105분 러닝 타임으로 완성됐다.

영화는 1980년 5월, 남편 철수의 의문사 이후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엄마 명희(김부서 분)를 이해할 수 없던 딸 희수(김꽃비 분)가 잊혀진 진실을 마주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 기본 줄거리다. 박기복 감독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돼 남다른 느낌을 준다.

영화는 개그우먼 희수의 우스꽝스러운 발레무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때 죽었으면 열사라는 소리라도 듣지, 왜 살아 남으셨어요?"라며 엄마 명희의 마음에 비수를 꽂던 희수가 병실에서 우연히 엄마의 노트를 발견한다. 노트를 매개로 1980년 5월의 과거 명희와 철수가 등장한다. 이들은 어느 평범한 대학생처럼 농촌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엄군에 맞서 싸우는 의로운 면을 지니고 있다. 시간이 흘러 희수는 아با인 철수를 죽인 악랄한 사복 경찰이었던 영찬과 마주하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관객과의 대화에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제작비 후원 통해 3년간 제작...5월16일 정식 개봉

편집 부자연스럽고 원곡 못살린 리메이크곡 아쉬워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진행되는 영화는 편집이 부자연스러워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또 영화 속에 등장하는 리메이크 된 노래 '입을 위한 행진곡'은 원곡의 분위기를 해쳐 어색하고 불편했다. 몇몇 연기자들의 부자연스러운 사투리 연기도 영화에 몰입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였다.

영화관람을 마친 관객들은 울먹이며 쉽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이날 영화관을 찾은 정수미(여·29세)는 "올해가 5·18이 발생한 지 38년째라고 알고 있다. 이제라도 5·18이 영화로 제작돼

널리 알려지게 돼 다행이다"며 "입을 위한 행진곡'이 영화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시사회에 참석한 박 감독과 출연배우 김꽃비, 전수현, 김재희, 김효명, 한다영 등은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 감독은 "저희 영화가 멀고 험한 길을 걸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며 "스토리 펀딩 후원자들을 비롯해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희수 역의 배우 김꽃비는 "10년 전 광주에 왔다가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면

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게 됐다"며 "방문 당시 충격을 받았지만 제작과 관련해 출연연의가 왔을 때 너무 기뻐다"고 밝혔다.

철수 역을 맡은 배우 전수현은 "입을 위한 행진곡'이 영화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명희 역을 맡은 배우 김재희는 "영화가 개봉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영화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감독과 배우들의 무대인사에 이어 6명의 대표 후원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글·사진=전은재기자 ej6621@

꿈수·물염치 시대에 놓는 일침

김요수 산문집 '쓰잘데기' 출간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는' 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백성이 임금을

있다. 무엇보다 저자는 촌철살인보다는 특유의 풍자와 해학으로 각각의 소재를 맛깔스럽게 풀어낸다.

책에는 모두 65편의 글이 담겨 있다. '상전 배부르면 중 배고픈 줄 모른다', '바늘 가진 놈이 도끼 가진 놈 이긴다', '뒷물이 맑아야', '김기춘 그리고 논공행상의 굴레' 등 글에는 저자 특유의 세상을 향한 일침을 담고 있다.

'떠받드는' 세상을 우리가 모두 '평등한' 세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을 '다스리니까' 염치가 없어진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를 찾아야 합니다."

'소설 페타타령'의 김요수 작가가 최근 산문집 '쓰잘데기'(해리출판사·사진)를 펴냈다.

책은 산문집이라는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시사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박근혜의 물염치 시대와 이명박이 '다스리던' 꿈수의 시대 등이 녹아 있어 지난 정부의 비정상적 행태를 엿볼 수

전세진 시인은 추천사에서 "지난날(과거)을 바탕 삼아 하루와 한 해를 시물레이션하는 힘이 뛰어나고, 날마다 '밤잠 했는지'를 묻는다. 멀리 보며 걷고, 언저리를 함부로 하지 않아서 만만조차 허투루 갖지 않는다"고 평했다.

한편 광주 출신 김요수 작가는 산문집 '딱 좋아 딱 좋아', '부서불랑게' 등을 펴냈으며 현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백양사 성보문화재 국가문화재 지정을"

내일 국회도서관서 세미나



'장성 백양사 극락전 아미타회상도'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진스님) 성보문화재의 국가문화재 지정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고불총림 백양사 성보문화재 국가문화재 지정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송은석 동국대 교수가 '장성 백양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박도화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장성 백양사 극락전 아미타회상도', (재)불교문화재연구소 민할 연구사가 '장성 백양사 정유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최인선 순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영숙 규남박물관 관장, 김숙희 전남대 지역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예술협회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16일 마을카페 싸목싸목

"올해도 목련은 피고 지고 시간은 하염없이 앞으로 달려가지만 그 목련은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우리를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다."

(사)문화예술협회가 제48회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음악회 '목련꽃 그늘 아래서'라는 주제로 공연을 연다. 1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서 서구 풍암동 마을카페 싸목싸목.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 음악에 해설을 곁들이 진행된다.

테너 장호영이 '목련화', '나물 캐는 처녀'를 부르며 소프라노 박성경은 '진달래꽃'과 '보석의 노래'를 노래한다.

또한 9명으로 구성된 파파양상블은 '금발의 제니'와 '시골 경마'를 선보이며 바순을 연주하는 문지환이 '백조'와 '내 영혼 바랍디어'를 연주한다.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이음은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시작 전에 도착한 분들에게는 따뜻한 커피도 제공된다. 전화 062-384-2033.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기형도의 시세계... '아시아 서석문학' 발간

광주에서 발행되는 문예지 '아시아 서석문학' 봄호(통권 45)가 발간됐다.

특집 '작가 탐구'로 젊은 시절에 요절한 시인 기형도를 다뤘다.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안개'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던 기형도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세계를 견지했던 시인이다. 29세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많은 시인과 비평가들로부터 상찬과 주목을 받았다. '장밋빛 인생' 외 대표 작품 9편이 수록돼 시인의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집 '시술'에서는 허갑순 시인

을 조명했다. 순천 출신으로 1995년 '시와 산문'으로 등단한 허 시인은 조선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나무들' 연작시를 비롯한 모두 10편의 작품이 실렸다.

이번 호에는 제45회 신인문학상 수상자인 시 부문 김성일 씨와 임금남 씨 그리고 수필 부문 김동기 씨와 유미자 씨의 당선작이 실렸다. 또한 이들의 당선소감,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수록돼 있어 신인들의 각오와 이들의 작품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밖에 아동문학, 시조, 초대시, 서석시 등 분야별 문인들의 작품들이 다수 담겨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소속하고 확실히 행복
소속하고 확실히 행복
소속하고 확실히 행복

특집
소속행
프렌드
확신
복간 5주년 - 발행인의 본지
다섯 번째 봄
새순처럼 차오르는 첫 마음

스프링이아기
'디펜딩 챔피언' 호랑이 군단
최강 전력 그대로 V12 시상 출발

해경수상부 공동기획-한국의 국가어항②
활기와 체험,
서해안권 국가어항들

노중훈의 꿈의 여행⑤
호수에 기댄 핀란드인의 삶
핀란드 레이크랜드

동네책방에 빠지다-책방발굴⑤
남만, 지혜 실은 물 위 서점
런던 리젠트 운하
'워드 온 더 워터'

매양 초대석
나무칼림니스트 고규홍
"나무아름다운 곳에서는
사람도 평화롭죠"

광주풀리 다시보기④-
소통의 오두막과 서원문 재등
사람, 자연, 삶 속에서
문화로 소통하는 풀리

문장이 승려는 문학관을 찾아서⑥
지리산처럼 유장한
소설가의 공간
이병주 문학관

문화연장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전의 즐거움
ACC 브런치 콘서트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②
'천재 감독' 두 명의 전쟁영화 두 편 스틸비 vs. 멜릭

진시리뷰
<이강하의 길>
이강하미술관 개관전

트렌드 따라잡기⑥
혼술이 외로운 그대
'복막' 하실래요?

나무 사이로
부화꽃 피는 생태도시
다양한
봄날 문화소풍 즐기며
정겨운 옛 시간과 자연 품으로
담양식 데자갈비, 떡갈비